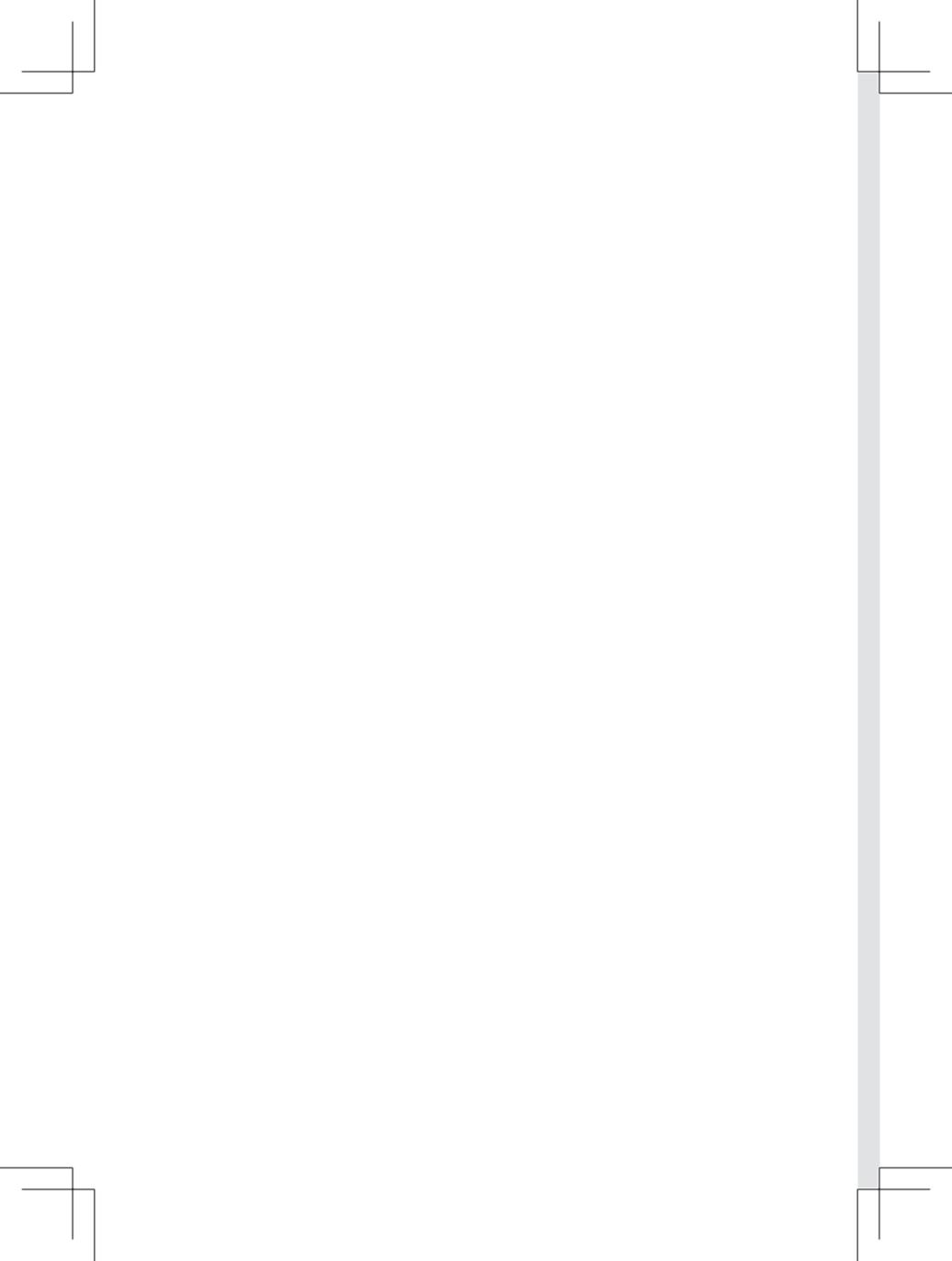


신앙 성장 시리즈 49

## 남자다운 남자



신앙 성장 시리즈 49

## 남자다운 남자

What Does God Expect of a Man?

 한국오늘의양식사

## 남자다운 남자

What Does God Expect of a Man?

© 2019 Our Daily Bread Ministries,  
Grand Rapids, MI, USA

인쇄 : 2019년 6월 01일

발행 : 2019년 6월 11일

저자 : 마크 스트라우스

감수 : 김상복

번역 : 이덕진

교열 : 이재춘

발행인: 김상복

발행처: 한국오늘의양식사

(031)780-9565~8

인쇄처: 소망사 (031)977-4232

# 차례

발행인의 글 / 김상복 목사 / 6

하나님이 바라시는 남자 / 미틴 디 한 2세 / 8

1. 슈퍼맨 / 9

2. 하나님이 바라시는 남자란? / 12

1) 남자다운 성품 / 14

2) 섬기는 리더십 / 21

3) 남녀의 동등한 영성 / 32

4) 건강한 인격 / 43

3. 피해야 할 극단적인 남성의 모습 / 56

4.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남자”가  
되어 주시오 / 59

## 발행인의 글



###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자

남자다운 남자! 멋진 제목이다. 누군들 남자로 태어나 남자다운 남자가 되고 싶지 않을까? 그런데 문제는 남자다운 남자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아야 남자다운 남자가 될 수 있지 이상적 모델을 전혀 모른다면 목표 없는 화살이 어떻게 과녁을 맞출 것인가?

대부분 남성들은 그저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남자로 그냥 살아 나가는 것이지 남자의 마땅한 모습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이상을 향해 날마다 자신을 훈련하고 성장시켜 가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그 이상형이 무엇인지 아무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고 남자가 남자의 참된 모습을 이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는 대단히 혼란스럽다. 어디서 남자다운 남자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 남자는 무엇이며 여자와의 차이는 무엇인가? 남자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 그

특징은 무엇인가? 참된 남자의 상이 있다면 남자인 우리들  
이나 남자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나 남자와 결혼해 가  
정을 이룬 여자들이 알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남자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이런 글은 모두  
가 읽고 공부하고 새겨서 삶의 지침으로 삼아야 할 내용들  
이다. 불완전한 세상이기는 하나 남자들이 참된 남성상을  
찾아서 남자다운 남자가 될 때 이 땅에 있는 가정과 사회  
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좋은 책자를 또 다시 「한국 오늘의 양식사」에서  
독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기 짝이 없습니다. 여  
러분만 읽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 주십시오. 지  
금은 과거 언제보다도 남자다운 남자가 필요한 시대입니  
다. 출판을 위해 수고해 주신 「한국 오늘의 양식사」 위원들  
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며

**김상복 목사**

## 하나님이 바라시는 남자

남자는 어떻게 생겨야 하나? 어떻게 말하고 행동을 해야 하나? 남자와 여자는 생리학적 차이 말고는 어떻게 다른가? 성경은 하나님이 지으신 남자의 가치, 곧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지, 그리고 친구나 독신생활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남자는 여자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옳은지? 죄는 어떻게 본래의 남성상을 왜곡시켜왔는지? 이상적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진 오늘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남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러한 문제들을 커트 디 한 목사님이 이 책에서 다룹니다. 읽으면서 남성 독자들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모습으로 완성되어 가는 법을 배우고, 여성 독자들은 삶의 동반자인 남성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격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틴 디 한 2세

# 1 슈퍼맨 같은 사람?

하나님은 육신의 한계가 있는 남자들에게서 슈퍼맨과 같은 비현실적인 모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남자를 만드시고 높은 기대를 가지신 하나님은 또한 사람이 혼자 힘으로 거기에 이를 수 없다는 것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면서 그분에게서 배우고 능력을 입고 인도하심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문제는 남자가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해 너무나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성상이 혼란 가운데 실종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남자로서의 성적 정체성은 어떻게 나타나야 하나? 남자의 감정은 어떻

게 표현해야 하나? 여자는 어떻게 대하는 것이 맞는  
가? 여자의 말을 얼마나 듣고 배워야 하나? 하나님  
뜻에 맞는 남자도 예쁜 여자들을 좋아하나? 아빠들  
도 다 아기 기저귀를 갈아주어야하나? 하나님은 스  
포츠와 고급 승용차를 좋아하는 남자를 싫어하시는  
가? 하나님은 조용히 있고 싶은 남자들에게 나가서  
친구들과 어울리라고 하시는가?

남성의 올바른 역할이 혼돈된 결과 오늘날 사회 곳곳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 엄청난 성의 남용, 포르노의 범람
- 퇴폐적 음악과 매체
- 동성애, 매춘, 무분별한 성행위
- 에이즈와 성병
- 결혼과 가정의 파탄
- 직장 내 성추행, 성폭력의 문제
- 스포츠 폭력들

- 지도층의 성 추문
- 남성 우월주의와 극단적 여권 신장 운동
- 전통적 남성 직업과 여성의 진출
- 교회의 남녀 직분에 대한 이견들

이렇게 혼란된 사회에서 우리에게서 믿고 따를 수 있는 바른 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남자들에게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는지를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이 책의 목적입니다.

## 2

# 하나님이 바라시는 남자란?

사람들에게 남자의 역할에 대해 묻는다면 세대 차이, 사회적 이념의 차이, 빈부의 차이, 도시와 농촌의 차이 등에 따라 각기 다른 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대답들은 모두가 한번 왔다 지나가는 문화적 산물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태초에 남자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변하지 않는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우려면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이 책자를 읽어가면서 성경을 함께 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은 알지만 그 가운데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 부분은 없는지, 또 오늘의 사회에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알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쓰인 당

시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세상은 크게 변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남자의 사명과 역할에 대한 대답이 복잡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모든 남자가 지켜야 할 원칙과 지혜들을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그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남자가 다음 네 가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 남자다운 성품 (Masculine Distinction)
- 섬기는 리더십 (Servant Leadership)
- 남녀의 동등한 영성 (Spiritual Equality)
- 건강한 인격 (Strength of Character)

## 남자다운 성품 (Masculine Distinction)

텔레비전에 나오는 남성들을 보면 약하다는 인상을 주는 사람도 있고 영웅 같은 인물들도 있습니다. ‘람보’처럼 우람한 근육을 자랑하며 누구라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남성일까요?

### 남자답다는 뜻은?

아래에서 남자다운 성품은 어느 것일까요?

- 자기보다 무거운 역기를 드는 사람
- 일로 거칠어진 손
- 싸우다 생긴 흉터들
- 왕성한 식욕
- 여자를 성적 대상으로 보는 눈
- 여자와 어린이를 마음대로 다루는 남자
- 자기주장을 관철하고자 마는 숨씨

- 절대로 눈물을 보이지 않는 남자
- 거칠고 대담하게 행동하는 남자
- 스포츠에 열광하는 사람

그런데 남자답다는 말의 뜻을 알아보려고 세상의 사전을 찾아보아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여자답다는 말의 반대어로서 남자만의 특징을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바른 답을 찾으려면 남자가 타고나는 유전적 정체성과 하나님 뜻하시는 특징들을 알아야 합니다.

###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다른가?**

먼저 신체적 특징이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겉 모습만 다르게 만든 것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의 세포 하나하나 까지, 자세히 말하면 23번째의 염색체에 이르기까지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신체적(physical), 정서적(emotional), 심

리적(psychological), 정신적(mental), 인간관계(relational) 등 모든 면에서 다릅니다.

테스토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은 남자의 신체적 발달과 뇌의 사고에 영향을 줍니다. 여자에 비하여 남자는 대체로 위장이 작은 대신 폐가 큽니다. 적혈구가 20% 더 많고 근육의 힘이 50% 더 강합니다. 수명이 짧습니다. 높은 온도에서 여자보다 더 견디지 못합니다. 심장 박동수가 낮습니다. 빛에 민감하나 소리에 둔합니다. 왼손잡이가 될 가능성이 더 많고 어휘력은 뒤지고 근시의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알레르기를 쉽게 앓고 더 호전적이고 성욕이 더 강합니다. 시각에 의해 더 쉽게 성적 흥분이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해가는 소질이 여자보다 적습니다. 논리적이지만 직관력이 약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생김새와 행동과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얼마 전 의학 정보에 의하면 남녀 간에 언어 구사력과 공간 개념을 인식하는 능력의 차이의 원인

으로 남녀의 뇌가 해부학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 **남성의 남성다움이 하나님께 중요한가요?**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남성다움이나 여성다움에 지나친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닐까요? 아닙니다. 인간이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다움에 대해 아주 확실한 생각을 가지셨습니다.

창세기 1:27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하였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른 특징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디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18에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종 동물을 지으시고 아담이 여기에 이름을 다 붙인 다음, 성경에 보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20절)라고 하였

습니다. 이어서 남자와 여자는 결혼을 하고, 연합하고, “한 몸을 이루고”(24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였습니다(창 1:27-28; 2:18, 21-24). 여성이 존재하지 않으면 남자로써의 아담은 불완전한 존재일 수밖에 없고 역할도 주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 **오늘의 문화에서의 남성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다는 성경의 말씀을 부정하고 남자와 여자는 오직 생식 기능에서만 역할이 다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남자들은 남성이우월한 존재라고 말하고, 어떤 여자들은 남자를 여자의 적이라고 합니다.

성의 구분이 흐려지면서 특히 남자들이 여자처럼 차려입고 행동도 그렇게 합니다. 동성애의 합법을 주장하는 사람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사이의 섹스를 괜찮은 생활 스타일의 하나라고 주장합니다.

왜곡된 개념들이 성적 욕구에 탐닉하는 사람들로 인해 생겨납니다. 포르노가 번창하고 성적 환상, 성폭력과 같은 수렁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남성답다는 것이 다만 남성의 원초적 성적 본능을 추구하는 수준으로까지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의 모습은 아닙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의 성에 대해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 자연과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나는 성적 문란에 대해 여러 곳에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은 무분별한 성행위(출 20:14; 레20:10; 잠6:24-35; 고전6:15-20)와 동성애(레18:22; 롬1:26-27)와 포르노와 같은 음욕(마5:27-28; 골3:5)입니다.

### **이런 책망을 받는 이유는?**

로마서 1장에 그 이유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죄와 우상숭배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21절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 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하였습니다. 24 절에는 이와 같이 거역한 결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욱되게 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인간의 사회에 퍼졌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진리에서 떠난 결과 성과 인간관계에서 온갖 타락의 현상이 생겼습니다.

### **남자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하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고전7:18). 창세기에서의 본래의 뜻은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결혼하여 사는 것을 정상적으로 보면서도 한편으로 어떤 사람은 혼자 살 수도 있고 그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마19:12; 고전7:32-35). 예수님과 사도 바울

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좋은 예가 됩니다.

### **남성다운 점에는 또 어떤 것이 있나?**

이 책의 다음 부분에서는 섬기는 리더십, 남녀의 동등한 영성, 건강한 인격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의 사회는 남자 아이들에게 어떤 남성상을 제시하고 있나요? 세상의 압력에 종교가 굴복하여 남성의 역할이 왜곡되는 것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요? 남성의 역할이 잘못되는 바람에 여성의 역할도 잘못되고 있지는 않은지요?

### **섬기는 리더십 (Servant Leadership)**

섬기는 리더십이라는 제목 자체가 모순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섬기는 종이 동시에 리더가 되는 것은 모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십이란 일방적으로 부리는 것과는 다르고, 섬긴다는 것도 주인이 시키는 대로 굴종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 **어떤 리더십을 말하나?**

성경적 리더십이란 책임감이 있고(responsible), 상대의 아픔을 공감하며(compassionate), 이해심이 깊고(understanding), 결과에 책임을 지며(accountable), 능력이 있고(competent), 존경받을 만하며(respectable), 권위가 있고(authoritative), 솔선적이고(pioneering), 모범이 되고(exemplary),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God-fearing) 지도자를 뜻합니다. 리더십이란 모든 결정을 혼자서만 내리지 않습니다. 또한 결혼생활에서나 교회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소위 “보스 기질”을 발휘하는 것도 아닙니다.

리더십이란 스스로 앞장서고,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과에 대해 함께 책임지는 것을 말합니다.

### **어떤 섬김을 말하나?**

성경이 말하는 섬기는 자는 적극적으로 일을 맡고 (responsive), 남을 존중하고(respectful), 기꺼운 마음(willing)과 사랑하는 마음으로(loving) 자신을 희생하고(self-sacrificing) 순종하는(submissive) 사람을 말합니다. 섬긴다는 것은 아무 생각도 없이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남을 겸손히 섬기며, 자신의 기쁨 보다는 남에게 가장 좋은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에베소서 5:22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좀 더 살펴보면 남자와 여자는 서로에게 복종하라(21

절)고 하였습니다. 또한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25절)고 하셨습니다.

### **섬김과 리더십이 합칠 수 있나?**

이 두 가지를 잘 합쳐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시키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배척을 당하고 불순종과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참아내었습니다(빌2:5-11).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20:28).

자신이 가진 권위와 능력만큼 사람을 부릴 힘도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지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 흠 많고 목이 굳은 사람들을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는 강력한 리더십을 구사하셨지만 그 리더십 안에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녹아 들어있었습니다. 그분은 아무도 강제로 따라오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경과 순종을 얻어낸 다음, 자발적으로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자들이 오늘날 보여 주어야 할 리더십입니다.

### **설기는 리더십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이에 대한 간단한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 미혼 남자들은 자신을 돌볼 뿐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이 따를 만 한 본을 보여야 합니다(딤후 4:12-16). 미혼 남성의 건강한 성품(character)과 안정된 인격(stability)과 남을 세워주는(edify) 마음을 보고 미혼 여성들의 마음이 이끌려야 합니다.

-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같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고전11:3)고 하였습니다. 또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엡5:25)고 하였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인도함을 기꺼이 따르기를 바란다면 남편은 반드시 말과 행동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 아버지들은 자식을 훈육할(training) 책임이 있으며(신6:6-9; 엡6:4), 자식에게 필요한 것으로 돌보아야 하며(딤후5:8), 자식을 노엽지 않게(엡6:4; 골3:21) 대하여야 합니다.
- 교회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남자는 마치 목자가 양떼를 인도하고, 먹이고, 보호하고, 키우는 것처럼 자신이 맡고 있는 교인들을 잘 인도해야 합니다(벧전5:1-4).
- 사회인으로서 구약의 다니엘은 주님을 향한 자신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의로운 일을 했습니다(단1, 6

장). 믿지 않는 이방인들 속에서 용기를 내어 주  
님을 인정함으로써 큰일을 해냈습니다.

### **가정과 교회는 왜 남자가 리더인가?**

남자가 더 우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  
에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며(갈3:28) 이 문제는 사  
람들의 주장으로 정해질 일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서 리더십이란 우월함을 뜻하고 섬기는 것은  
열등함을 뜻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  
스도의 머리이신 성부 하나님도 그리스도와 동등하다  
고 하였습니다(고전11:3).

남자의 리더십에 대한 말씀은 창세기에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처음 나타납니다. 아담이 먼저 창조된  
다음 남자의 부족한 것을 완성하기 위해 하와가 창  
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  
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  
라”(창2:18)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7과 디모

데전서 2:13에서도 남자가 먼저 창조되고 하와가 그를 돕는 배필로서 창조된 것처럼 남자가 리더의 역할을 맡는 것이 섭리이므로 교회에서도 남자들이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 **여자는 남자 앞에서 절대 순종해야 하는가?**

남자는 언제나 생각이나 행동에서 앞서 나가고 여자는 뒤에서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아직도 텔레비전에서 간혹 보는 것처럼 남자가 아이들을 대하듯 여자들에게도 떠들지 말고 잠자코 있으라고 해도 되는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을 다 보아도 올바른 하나님의 딸들은 이렇게 복종하는 노예와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처해 있는 위치에서 중요하고도 적극적인 변화를 일구어 내면서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 중요한 공헌을 했습니다(잠31:10-31; 삼상25:18-44; 왕하22:14-20; 사4:1-

24; 롯; 예; 눅2:36-38; 8:1-3; 롬16:1-15; 빌4:3; 딤후 1:5).

### 섬기는 자세는 왜 중요한가?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이 없이 리더십을 발휘할 때에는 균형을 잃은 위험한 사람이 됩니다. 섬기는 자의 역할을 잘 하려면 진정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본받을 만한 지도자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은 이렇습니다.

- 오래 참습니다.
- 온유합니다.
- 투기하지 않습니다.
- 자랑하지 않습니다.
- 교만하지 않습니다.
- 무례하지 않습니다.
- 자기만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 성내지 않습니다.

- 악한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 모든 것을 참습니다.
- 모든 것을 믿습니다.
- 모든 것을 바랍니다.
-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와 같은 사랑을 하는 남자에게는 그의 아내나 가족이나 교인들이나 누구든지 그의 리더십에 서로 기꺼이 순종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을 하면 잃는 것이 많을까 걱정하는 남성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렇게 사랑하려면 자신이 상처를 입거나 소외당하는 어려움도 각오해야 하고 타인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자존심을 접어두고 스스로 낮아져야만 합니다.

### **남자들이여,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남성으로서의 여러분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

서 그리고 사회에서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할 책임이 있는 동시에 커다란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쉽다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고전12:13; 롬8:9) 그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리더십에 순종하며 그를 섬길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서도 섬기는 리더십이 가능해집니다. 남을 섬기고 리드하는 것은 주 예수님과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질 때에 자연스럽게 가능해집니다.

### **생각해 봅시다**

섬기는 리더십은 결혼 전 데이트 시절에는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당신은 어떤 리더를 마음으로 따르게 됩니까? 남편이 아내의 믿음과 헌신을 얻어내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자녀들

은 아버지인 여러분에게서 어떤 섬기는 리더십을 보고  
있나요? 리더에게는 어떤 책임이 따르나요?

### **남녀의 동등한 영성** *(Spiritual Equality)*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이 한 때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 세 가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한다. 나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하나님, 나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하나님, 나를 무식한 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하나님, 감사, 감사를 드립니다!” (랍비 주다 벤 일라이, AD 150). 이렇게 여자를 이 세상과 하늘나라에서 이등시민으로 보던 때도 많았습니다. 여자만이 이러한 편견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남녀 모두 자기 쪽 입장만을 세우려는 사람들로 차별대우를 받던 때가 있어왔습니다.

## 불평등은 왜 생겼나?

만인평등을 말하는 사람들도 실제 생각과 행동을 보면 역시 다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민족이 유전학적으로 더 우수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은 지구 어디서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 남의 권리를 인정치 않는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종교적 편견, 인종 차별, 집단학살, 사회계급제도, 부의 독점, 그밖에 자기중심적 이기심으로 생기는 현상들이 세상에 나타나면서 인간의 존엄과 생명이 희생당해 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남녀평등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논쟁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의 편견과 차별 때문에,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결과로, 남자와 여자가 역할을 다 하지 못한 결과로, 남자가 여자를 동등하게 대하지 않는 결과로, 여자도 직업을 가지길 원하게 되면서, 여자도 과거 남자가 하던 일을 잘 할 수 있게 된 결과

로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여자는 남자와 동등하게 창조되었나?**

태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창1:27). 남자와 여자는 처음부터 어느 한 쪽이 우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남녀가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받아야 할 가장 높은 가치를 마땅히 인정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어서 남자와 여자에게 몇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우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지위에 세우셨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지배를 받으라고 세상에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남자도 동물처럼 사람의 지배를 받으라고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 **동등하다는 것은 동일하다는 뜻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창조하실 때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창2:18)이 되라고 하였습니다. 하와는 아담과 “같은 성분”으로 지어졌습니다. 아담이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려면 하위를 배필로 삼아야 했습니다. “돕는 배필”이란 말에는 열등하다는 뜻이 없습니다. 하와는 아담과 다를 뿐이었습니다. 그의 역할은 아담을 도와 그를 완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 **남녀 간 역할이 달라도 영성은 동등한가?**

미국에서는 인권운동이 한창일 때 “평등권의 차별적 적용”이라는 대안이 나왔습니다. 내용은 소수민족과 다수민족 두 그룹으로 차등을 두고 각 그룹 안에서는 동등한 공공 서비스와 고용 기회와 교육받을 권리를 적용하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불평

등을 더욱 깊어지게 했습니다.

여지들도 이런 식으로 차별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에도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 남자들은 두 개의 극단 중 하나에 쏠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극단이란 복종하는 자세로 움츠리는 경우와 지나치게 공격적인 자세로 지배하려는 경우를 말합니다. 남성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대개 여자를 압제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자의 지적 능력과 강점이 무시되고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남자와 여자의 서로 다른 역할과 기능은 어떻게 살려야 할까요? 남자다운 성품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서로에게 보완이 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또 섬기는 리더십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남녀의 역할을 구분하셨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여자를 영적으로 약하다거나 행동에 대한 책임이 적다고 보신

것이 아닙니다.

여자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남자가 더 열등하다는 뜻일까요? 또 남자는 육체적으로 여자보다 힘이 더 세게 만들어졌고 힘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자가 더 열등하다는 뜻일까요? 이렇게 따지자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누가 더 우월한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성경이 말하는 남자와 여자의 동등함**

이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성경말씀은 갈라디아서 3:28에 있습니다. 전체의 뜻을 알기 위해서 26절에서 29절까지를 보십시오.

*“26.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27. 누구든지 그리스도*

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8.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  
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29.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  
라.”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지 말  
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으로 하나가 된다고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의 자녀가 되는 데는 인종과 사회적 신분과 성별의 차  
이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는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의 은혜를 동  
등하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  
나 구원의 약속을 통해 우리에게 예비된 모든 것을 유  
업으로 받게 됩니다.

편견으로 가득했던 초대교회 시절에 사도 바울의  
말씀은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종교심이 강했던 많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영적으로 우월하다는 교만한 태도를 가졌습니다. 종을 거느린 주인들은 종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한 인간으로 보지 않고 재산의 일부로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남자보다 영적으로 열등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면 누구나 동등하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은 이들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근본을 바꾸어주시는 생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 **남자는 여자를 어떻게 대하여야 하나?**

성경적 원리가 몇 가지 있습니다.

- 깨끗함으로 대하라 (with purity): 바울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젊은 여인들을 대하기를 자매에게 하듯 “일절 깨끗함으로”(딤후5:2) 하라고 했습니다. 깨끗지 못한 음란스런 말이나(엡5:3,4) 음행과 간음은 금지된 일입니다(히13:4).

- 이해심으로 대하라 (with understanding): 남편은 아내와 살면서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벧전 3:7). 이 말씀은 원래 부부간에 필요한 말씀이지만 그 원리는 기혼과 미혼 모든 남자에게 해당됩니다. 남자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 여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남자는 여자가 자기를 닮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 품위를 인정하고 귀히 여기라 (with dignity and honor):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르기를 나이 많은 여인을 대하기를 어머니 모시듯 하라(딤후 5:2)고 했습니다. 베드로도 남편들에게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벧전3:7)고 했습니다. 이런 관계는 먼저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모든 남자와 여자의 사이에 이러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롬12:10). 베드로가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한 이유는 예수를 믿는 여인은 그리

스도 안에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벧전3:7; 엡  
1:3,18).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겨야만 기도가 막  
히지 않습니다.

- 사랑으로 대하라 (with love): 이 말씀처럼 절대  
적이고 포괄적인 명령은 없습니다. 사랑은 남자  
가 해야 할 모든 행실을 다 합쳐놓은 것입니다.  
남자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  
해 보이시는 그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엡5:25-  
33). 남자는 여자를 대접하기를 자기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대접해야 합니다(마7:12; 22:39).
- 은사를 살리라 (with an awareness of their  
giftedness):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4-7에  
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  
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 성령을 따라 은사를 받았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또 신약성경에서는 교회 안에서 은사를 사용한 여인들을 많이 보여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는 바울이 교회의 영적 성장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여인들을 많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 순종으로 대하라 (with submission): “남자가 리더를 하고 또 순종도 해야 하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엡5:21)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남자가 머리된다는 개념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남자도 자기를 희생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리더십은 독재자의 리더십이 아니고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 생각해 봅시다

당신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어떻게 대합니까? 여자의 돕는 역할이 가치 면에서 조금도 덜하지 않다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자가 자신의 영적 은사를 잘 활용하도록 도와주려면 남자는 (기혼자, 미혼자, 교회 지도자 등)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건강한 인격 (Strength of Character)

남자가 근육으로 단련된 몸을 가꾸려면 물론 운동을 많이 하고 음식 조절도 잘 해야 합니다. 세상에 어려움 없이 저절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건강한 인격도 오랜 세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개발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자가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꾸준히

히 먹으면서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을 잘 이수할 때 얻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것을 운동선수에 비유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그러므로 내가 달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고전9:25-27).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딤후4:7)고 하였습니다.

### **건강한 인격이란?**

위에서 본 경건함과 영적 성숙함이 건강한 인격의 전부는 아닙니다. 먼저 인격이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D. L. 무디 선생님은 “인격이란 남이 안 볼 때 행하는 나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인격이란 남에게 보여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진정한 나를 말합니다. 우

리는 인격이 시키는 대로 행하고 말합니다. 인격이란 자신의 정체성이요 여러 면의 성품들을 다 합쳐 놓은 것입니다. 인격은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인격이란 강건하고 좋은 인격을 말합니다. 인격이 건강한 사람은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죽대”를 가지고 해야 할 말을 하고, 신념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바라시는 성품들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인격”에는 경건함과 영적 성숙 뿐 아니라 바른 자아상을 보여주는 일관된 인격,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개발시켜주시는 좋은 성품들이 들어 있습니다.

### **건강한 인격은 어디서 나오는가?**

- 자신감-하나님과 화평하고 주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알며 생기는 자신감 (롬5:1; 엡1,2)
- 일관성 (엡2:10; 빌3:16; 딤후2:12~14; 약2:14~26)
- 훈련 (빌2:12; 3:12~14; 딤후4:7)

- 바른 우선순위 (마6:33; 삼상13:13~14)
- 바른 본받기 (고전11:1; 히12:1~3; 13:7; 벧전 2:21)
- 하나님 명령에 순종 (요일2:5)
- 말씀을 꾸준히 양식으로 먹기 (벧전2:2)
- 성령의 능력에 의지함 (갈5:16~25; 엡5:18; 빌 4:13)
- 바른 선택-어떤 경우에도 옳은 일을 행하며 믿음 대로 살아감 (약2: 14~26)
-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 (잠3:5~6)
- 사람들에게서 배움 (엡4:7~16)

### **건강한 인격이란 실제로 어떤 것인가?**

남자에게 바람직한 성품은 디모데전서 3장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로 적합한 사람들을 뽑기 위해 바람직한 성품들을 말했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남자들에게서 원하시는 성품

입니다. 읽다보면 바울이 말한 것은 모두 인격에 관한 것이지 지적 능력이나 교육 정도, 신학 공부, 목회 경험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남자는 이런 성품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1~7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갖추어야 할 성품을 살펴보고 이것을 넓은 의미에서 모든 남자에게 적용하십시오.

#### 1. 흠이 없음 (Blameless)

하나님은 남자가 흠이 없기를 바라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합쳐 한 마디로 말하면 남자는 성경적 원리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2. 한 아내의 남편 (Husband of one wife)

결혼한 남자는 아내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남자는 결혼서약을 지키고 순결치 못한 어떠한 행실도 금해야 합니다. “한 여자의 남편,” 이 말은 문자 그대로 다른 여인을 자기의 상대로 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남자는 정욕에 마음을 내어 주지 않습니다(마

5:27. 28).

### 3. 절제력 (Temperate)

진 게츠는 절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절제력 있는 남자는 자신의 육체적, 심리적, 영적 본분을 떠나는 일이 없다. 항상 안정되고 꾸준하며 사고가 명쾌하다.” 이런 사람은 부정적인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삶을 삽니다.

### 4. 맑은 정신 (Sober-minded)

이것은 절제력과 아주 가깝습니다. 사고방식이나 행동에서나 늘 바른 상태를 유지하며 건전한 판단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5. 선한 행실 (Of good behavior)

남자는 행실에 있어서 존경과 칭찬을 받을 만해야 합니다.

### 6. 친절함 (Hospitable)

그리스 어원에는 “낮선 이를 사랑함”이란 뜻이 있습니다.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친절히 대

하고 기꺼이 돕는 것을 말합니다.

7. 가르칠 수 있는 능력 (Able to teach)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남에게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고, 또 하나는 자신이 배우는 자세를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두 가지를 합치면 교만하지 않으면서 남을 가르칠 수 있게 됩니다.

8. 술에 빠지지 않음 (Not given to wine)

하나님의 사람은 술과 상관이 없어야 합니다(엡 5:18). 오늘날에 와서는 약물까지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버리고 정신을 황폐케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9. 폭력을 쓰지 않음 (Not violent)

그리스 원어로 “휘두르지 않음”입니다. 감정을 잃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난폭함에는 행동뿐 아니라 말도 포함됩니다.

10. 온유함 (Gentle)

하나님을 믿는 남자의 성품은 인자하고, 친절하고, 인내하고, 남을 배려합니다.

11. 다투지 않음 (Not quarrelsome)

남자는 시빗거리를 찾아다니거나 문제를 만들어 내어서는 안 됩니다.

12. 돈을 탐하거나 시기하지 않음 (Not greedy for money nor covetous)

돈과 재산을 모으는 것을 우선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은 돈에 빠지지 않게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마6:19-21; 딤후6:10).

13. 집안을 잘 다스림 (Rules his own house well)

남자는 집안의 머리입니다. 반드시 아내 및 자녀와의 사이를 바르게 지켜야 합니다. 남자는 집안의 훌륭한 관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14. 순종하는 자식으로 만듦 (Having his children under submission)

아버지는 집안에서 존경받는 리더이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여 자식을 교육시키고 훈육해야 합니다.

15. 서둘지 않음 (Not a novice)

아직 믿음이 자라지 않은 초신자가 중요한 일을 맡으면 교만해질 염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남자가 아직 충분히 해낼 수 없을 때에는 책임을 맡지 말라는 뜻입니다. 남자는 과시하고 싶은 욕망을 조심해야 합니다.

16. 밖에서도 좋은 평판을 받음 (Good testimony among those outside)

남자는 주변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좋은 평판을 얻어야 합니다. 변함없는 믿음을 보여 줌으로써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분명한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건강한 인격을 보이셨나?

- 사람의 아픔을 보고 함께 아파하셨습니다(막 1:40~42).
- 죄와 위선을 주저 없이 꾸짖으셨습니다(마23; 요 8:31~59).
- 죄를 미워하고 죄로 인해 괴로워하는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요8:1~11).
- 시간을 내어 기도하셨습니다(마14:23; 막 14:32~42; 요17).
-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능력을 얻으셨습니다(마4).
-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셨습니다(마21:12~13).
- 사명을 끝까지 좇으셨습니다(요12:23~33).
- 겸손히 이웃을 섬기셨습니다(마20:28; 요 13:1~17; 빌2:1~11).
- 가치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셨습니다(마5~7).
- 용서하셨습니다(마18:21-35. 눅23:34).

## 성경에 나타난 건강한 인격의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사람 누구도 예수님처럼 완벽할 수는 없겠으나 남자들이 살아가면서 키워야 할 바람직한 성품들을 잘 보여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개합니다.

### 노아

노아는 어둠을 비추는 횃불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부패한 세상 문화 속에서 의로운 자로 일어나 주님께 가까이 순종하고 120년에 걸쳐 방주를 지었습니다(창 6; 히11:7).

### 아브라함

그는 집안의 어른이었으나 아랑을 베풀어 조카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기회를 주었습니다(창 13).

### 요셉

하나님을 공경하였으므로 여인의 유혹을 피해 버렸습니다(창39). 형들에게 복수할 기회를 잡았을 때에

도 오히려 동정과 용서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창42-45).

### 모세

쾌락의 삶을 뒤로 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길을 따랐습니다(히11:24-25).

### 다윗

사울 왕으로부터 부당하게 죄를 뒤집어쓰고 쫓김을 당하면서도 그를 존중했습니다(삼상 24).

### 다니엘

이방으로 쫓겨난 한 젊은이로서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도(단1:8) 믿음을 감추지도 않았습니다(6:10-23).

### 보아스

룻의 신변과 명예를 보호해 주었고 그녀에 대해 책임을 졌습니다(룻2-4).

### 스데반

믿는 사람들은 그를 “좋은 평판의 사람, 성령과 지

혜로 충만한 남자”라고 하였습니다(행6: 3,5).

### **바울**

양심이 바로 서지 못한 교인들을 영적으로 보살핌  
으며(고전9:19-23) 자신의 양심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24-27).

### **바나바**

이 신실한 일꾼은 남을 도왔으며(행4:36;  
11:23~24), 위험을 무릅쓰고 마가에게 두 번째 기회  
를 주었습니다(행15:36-41).

### **생각해 봅시다**

남자들이여, 여러분은 삶을 통해서 건강한 인격을  
개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디모데전  
서 3:1~7과 비교할 때 여러분은 어디쯤 와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더 닮기 위해서 오늘과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 3

## 피해야 할 극단적인 남성의 모습

여러분은 고혈압과 저혈압 가운데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물론 둘 다 원치 않겠지요. 이것은 비정상적인 양쪽의 극단입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극단적 성향이 남자들에게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 줍니다.

아래에 보면 남자들이 빠지는 극단의 예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에 어떻게 어긋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읽으면서 이 책의 요점들과도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 *플레이보이*

성적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의 성적 욕구에 따라 살아간다.

### 완력형

남자란 모름지기 강한 근육, 거친 태도에, 여자를 지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 마마보이

어른이 되도록 자기 힘으로 해 본 것이 별로 없다. 엄마가 이 어른의 삶을 지배한다.

### 취미형

인간관계보다 취미 생활에 더 탐닉한다.

### 해파리형

친구나 아내, 아이들, 직장 동료가 자기 삶을 좌우하게 맡긴다.

### 장군형

남편으로, 교회 지도자로, 직장 상사로, 사회 지도자로 지시를 내릴 줄만 안다.

### 스포츠 광

운동을 하거나 남의 스포츠 경기를 관전하는 데에만 심취한다.

### 동성애자

몸은 남자인데 생각과 행동에서 남자의 정체성이 안 보인다.

### 일중독

일 자체가 언제나 첫째 관심사이며, 일을 해야 행복하고 안심이 된다.

### 근엄형

남자는 감정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갖고 자라왔다.

## 4

#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남자”가 되어 주시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바라시는 남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모습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도록 가까이 받아들이고, 우리의 잘못된 태도와 행동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날마다 열심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노력을 원하십니다. 이제 여러분도 지금의 자리에서 일어나 남자다운 성품과, 섬기는 리더십과, 남녀의 동등한 영성과, 건강한 인격 등에서 배운 주님의 원리들을 따르겠다는 결심을 하지 않으시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이 모든 책임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들어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심

각하게 오염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온전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도우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 주려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 값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 돌아가셨 습니다. 아직 한 번도 이렇게 고백해 본 적이 없는 분 이라면 지금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보통 때 쓰는 말 로 하십시오. 그저 남자로서 잘못된 죄를 아뢰는 것 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삶의 기준에 내가 못 미친다고 아뢰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쳐다보십시 오. 그가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당신이 받아야 할 벌 을 대신 받으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나님께 말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영적인 삶을 받아 들이십시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 께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하셨으면 이제 당신은 하나 님의 남자가 되는 첫걸음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부 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자가 되기 위해 기꺼이 주님께 순종하는 일만 남았  
습니다.

## 신앙성장 시리즈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주제별 소책자

- [01] 절망에서 희망으로(절판)
- [02] 교회는 누구에게 필요한가?(절판)
- [03] 오 신실하신 하나님(절판)
- [04] 복 있는 사람(절판)
- [05] 균형 있는 가정생활(절판)
- [06] 왜 살아야 하나?(절판)
- [07] 행복한 결혼생활(절판)
- [08] 남자다운 남자(절판)
- [09] 여자다운 여자(절판)
- [10] 걱정 없이 살고 싶다(절판)
- [11] 다시 찾은 사랑(절판)
- [12]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 [13]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다(절판)
- [14]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절판)
- [15] 어떻게 하면 마음이 평안한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절판)

- [16] 결혼의 약속(절판)
- [17] 어떻게 하면 자신에 대해 긍지를 가질 수 있을까요?(절판)
- [18] 균형 있는 구원의 신앙
- [19] 균형 있는 기독교
- [20] 하나님을 친히 알 수 있다(절판)
- [21] 어떻게 성령에 충만할 수 있는가?(절판)
- [22] 교회지도자의 자격
- [23] 갈등해결의 방법(절판)
- [24]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해결하나?(절판)
- [25] 종교나 그리스도나 무엇이 다른가?(절판)
- [26] 돈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 [27] 일에서 만족을 찾는 방법
- [28] 하나님은 내가 건강하기를 원할까요?
- [29]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맞이하자(절판)
- [30] 금보다 귀한 것
- [31] 좋은 교회를 알아보는 방법
- [32] 확신을 가지고 하는 기도
- [33] 스트레스의 폭풍 속에서 살아남기
- [34] 분노가 타오를 때
- [35] 말이 상처가 될 때

- [36] 삶이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요?
- [37] 하나님의 선택인가 인간의 선택인가?
- [38] 적그리스도란 무엇인가?
- [39] 실패를 이겨낸 다윗과 므낫세
- [40] 금보다 더 귀한 지혜
- [41]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
- [42] 완벽한 게임 계획
- [43]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 [44]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항로 찾기
- [45]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회의론자들의 질문들
- [46] 옳은 것과 그른 것 : 도덕적 절대성의 본보기
- [47] 로마서로 알게 되는 하나님
- [48] 복음서
- [49] 남자다운 남자

위 신앙성장 시리즈를 받아 보기 원하시면 한국오늘  
의양식사(031-780-956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